

강진군 서성도담길 골목상권 가족 방문객 복직 '성료'

무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2학기 개강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 서성도담길 일원에서 개최한 '서성도담길 상권 활성화 행사'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2026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제3회 코끼리마늘꽃 3days 행사 기간에 운영돼 강진읍을 찾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프리마켓이 마련돼 행사장 곳곳이 활기를 띠었다.

행사장에서는 미니 스탠드 무드 등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팽이 만들기, 바깥개비 만들기, 가족 액자 만들기 등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493명의 체험객이 참여했다. 체험 부스마다 참여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부모의 발길이 주변 상가로 이어지며 서성도

담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한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에서는 서성도담길 상가에서 내어놓은 조각 피자, 컵 과일, 구운 계란, 컵 닭강정,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행사에 참여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장 내 포토존과 일부 상가의 자체 할인 행사 역시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며 상권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특히 행사 당일 서성도담길을 찾은 방문객들은 인근 코끼리마늘꽃 3days 행사장과 연계해 관광과 소비를 함께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상가 이용객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골목상권 상인들 역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 서성도담길 골목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고민재 기자

무안군은 최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교육과정이다.

이번 2학기 과정은 무안군 내 2개 지역학습관에서 운영된다. 삼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초급 2단계 과정이,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회의실에서는 한국어 기초과정인 0단계와 이어지는 1단계 과정이 운영되며, 각 과정별로 25명 내외의 교육생이 한국어 학습에 나선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기대된다.

/고민재 기자

목포상공회의소, 128주년 모범근로자 시상식



목포상의 창립 제128주년 기념 회원사 모범근로자표창 수여식 사진

/목포시청 제공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창립 제128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사 모범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문화를 선도해 온 모범근로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원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목포상의 정현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수상자, 기업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표창을 받는 모범근로자는 총 17명으로 회원사에 3년 이상 재직하며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이 최종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추진된 '해외 산업 시찰'을 통해 해외 견문을 넓히게 된다.

/이문수 기자

함평,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남 함평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내달 8일까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자로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함평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 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주관하는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연 2.0%의 고정금리 조건이 적용되는 정부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주 후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군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영농 정착 의지,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신안, 제12회 '섬 병어 축제' 성황리 마무리

신안의 대표 여름 수산물인 병어를 주제로 열린 '제12회 섬 병어 축제'가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신안 갯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신안군과 섬 병어 축제 추진 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의 제철 수산물인 병어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행사 기간 1,300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병어 축제 행사장과 송도 수산물 유통센터 2곳에서 수산물 판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행사 프로그램은 병어 초무침 퍼포먼스, 초청가수와 지역 난타팀 등 공연으로 구성되어 농번기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이문수 기자

영암, '현대 N 페스티벌' 스피드 축제 열린다

전라남도는 현대자동차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원메이크(One Make) 레이싱 '현대 N 페스티벌' 2라운드 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동일 차종이 참가해 차량 성능보다 드라이버의 실력과 경기 운영 전략이 승부를 가

르는 원메이크 대회다.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을 활용해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이 반영된 행사로, 2003년 출범한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이후 24번째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총 6라운드 중 2라운드 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개 종목

83대가 참가한다. 경기는 길이 3천 45m인 국제자동차경주장 상설트랙에서 진행된다. 직선 구간과 중·고속 코너 등 11개 코너에서 가속 성능, 코너링, 타이어 관리 등 치열한 레이싱 전략을 선보인다.

순수 전기차 종목인 '그란 투리스모 eN1'은 아이오닉 5 N 기반 경주차가 참가하는 레이스다./이문수 기자

/이문수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탁면 기차마을로 232